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0. 5. 12(수) 14:30분 부터		
배포일시	2010. 5. 12(수)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
담당과장	조원경 (2150-7650)	담당자	박성필 사무관(2150-7651)

제목 : 한-UAE 양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경제협력 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 - 제 2차 한-UAE 공동 위원회 개최 결과 -

- 한-UAE 양국은 '10.5.12(수) 서울 신라호텔(3층, 라일락 홀)에서 「제 2차 한-UAE 공동 위원회」를 개최*하였음
 - 이번 공동위는 '09.12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, 원전수주 및 경협사업 추진 등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, 첫 번째 열리는 범 정부 차원의 고위급 협의체로서,
 - 우리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지경부, 교과부, 외교부, 복지부 등 17개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22명이
 - UAE측에서는 술탄 알 만수리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, 대외무역부, 보건부, 법무부 등 연방정부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, 아부다비 행정청, UAE 중앙은행, 마스다르시티, UAE 항공청, 두바이 항공청,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공사 등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인사 30명이 대표로 참석하였음
-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개최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, 양국간 조성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살려 보다 포괄적이고 실체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
 - 5.11일 실무회의, 5.12일 본회의 등 양일간에 걸쳐 무역·투자, 에너지·건설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,

- 중소기업, 환경, 고부가가치 서비스*, 양국 정부간 교류 증진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행정** 협력 등 5대 의제, 15개 분야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음

* 금융, 보건·의료, 교육, 노동 등

** 정부간 인사교류, 전자정부, 관세, 통계, 지식재산권 등

□ 윤증현 장관은 '80년 6월 양국 수교 이래,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양국간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하게 된 것에 깊은 의의를 표하며,

○ 이번 공동위가 양국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차 확인하고,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중요 미래 프로젝트들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어, 앞으로도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 형성해 나갈 것을 제안

○ 이에, 술탄 알 만수리 경제부 장관은 그 동안 양국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기업 및 정부가 보여 준 신뢰에 경의를 표하며,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·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

□ 또한, 양측 수석대표는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적극적인 대외개방·인적자원 육성 등 국가 발전전략* 측면에서 상호 유사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 공감하며,

* UAE는 두바이 전략 2015, 아부다비 계획 2030 등 국가발전전략 수립 하에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중동지역의 허브 역할 수행,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및 끊임없는 정부혁신 등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정책 등을 추진중

○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서로의 경제·사회적 강점을 공유하여 세계가 부러워 할 경제협력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고,

○ 현재 양국간 최대 현안인 「한-UAE 경제협력협정」(09.12월)에 따른 “한-UAE 경협사업”이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여타 경협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 관련 기관 모두의 관심을 촉구

- 양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,
 - 윤증현 장관은 한국의 미국, 인도, EU, 아세안 등과의 FTA 체결, G20 의장국으로서 개도국은 물론 신흥국과의 협력강화 노력 등을 언급하면서,
 - 한-GCC FTA의 조기 타결 및 신흥국간의 협력강화에 있어 UAE의 적극적인 역할 및 관심을 요청하였고,
 - 술탄 알 만수리 장관은 이에 화답하고,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, 중소기업 등 제조업 기반 조성,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UAE의 新 국가발전 전략을 중점 소개하고,
 - 산업 다각화 전략, 친환경 녹색성장 등에 대한 양국간 경험 공유를 제안
- 이번 공동위에서는 8개 분야*에 걸쳐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(MOU) 체결 등을 논의하고, 이 중 통계, 지적권 2개 분야에 대해서는 당일 MOU를 서명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
 - * ① 에너지, ② 중소기업, ③ 보건·의료, ④ 교육, ⑤ 전자정부, ⑥ 관세, ⑦ 통계, ⑧ 지식재산권
- ① (중소기업) 술탄 알 만수리 장관은 자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,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성공 경험 공유를 희망하였고, 우리측은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
 - 또한, 양측은 「한-UAE 공동투자조합」 조성 등을 통해 양국의 성장유망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안, 중소·벤처 기업이 참여하는 “벤처투자 Fair”, 청년 중소기업인 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고,
 - 중소기업 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한-UAE 중소기업협력 협정」 체결을 올해말 까지 체결하기로 합의

② (보건·의료) 최근 서울 삼성병원, 서울대 병원, 우리들 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교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간 보건·의료 분야 협력 MOU* 추진에 합의

* 보건복지부와 UAE 연방 보건부, 아부다비 보건청 등과 MOU 체결

- 양국 정부는 의료인력의 연수,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, 궁극적으로 의료 분야 교역 확대 및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등에서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*, 환자 송출국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

* 미국, 독일 등 약 27개국 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나, 한국 미포함

③ (교육) 양측은 인적자원교류 등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다는 인식하에,

- 교육당국간 MOU 체결을 통해 교수·연구원·유학생 등 인적교류 확대, ICT 활용 우수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상호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

④ (통계) 양측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계 분야의 첨단 정보 기술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우리 통계청과 UAE 통계당국간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통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

⑤ (지재권) UAE가 중동의 허브국가이며 무관세 지역임을 감안, 지재권 분야 협력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, 향후 협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양국 정부 당국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,

- 지재권에 대한 인식제고, 법·제도 개선, 심사관 교육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

⑥ (기타) 이외에도, 양국 국영석유회사간 유전개발사업 협력 MOU 추진을 논의하고,

- 전자정부 협력 MOU, 세관 당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둬

□ 또한, 무역·투자 및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 내실화 및 환경 산업, 철도·항공, 금융, 인력진출 등에 대한 신규 협력 방안을 창출하고, 정부간 인사교류 등 행정역량 분야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

< 무역·투자 >

① (민간교류) 술탄 알 만수리 UAE 수석대표가 양국 기업인간 교류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, 양측은 대한상의회와 UAE 상공회의소간 한-UAE 비즈니스 Council, 경제포럼 등을 활성화*하기로 합의

② (투자) KIC, KOTRA, 산업은행 등 우리측 투자전문기관과 UAE 측 투자전문기관*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

* ADIA(아부다비 투자청), ICD(두바이투자공사), ADIC(아부다비 투자위원회) 등

** KOTRA와 산업은행은 '09.6월 ADIC와 투자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음

③ (경제자유구역) 경제특구*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, 우리측은 UAE내 공공·민간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요청

* UAE는 제벨알리 자유무역지역, 두바이 공항 자유무역지역, “technology & media” 자유무역지역 운영 등을 통해 중동의 경제 허브로 부상

< 건설 인프라 및 환경산업 >

① (건설) “아부다비 2030 도시계획*” 등 인프라, 플랜트 관련 메가 프로젝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

* 2030년까지 아부다비를 현대적 세계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3,000억불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(주요사업 : 캐피탈 시티, 마스다르 시티, 림섬 개발 등)

- 또한, 양국간 고위급 건설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

② (환경) UAE측 주 관심사항인 하수 재이용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, 해수 담수화 기술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,

- 상호 방문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환경 분야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양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

< 철도 · 항공 물류 >

- ① (철도) UAE가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화물철도*, 고속철도** 등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모색

* 화물철도 건설사업 : 샤가스전~타리프~르와이스간 264km 구간

** 고속철도 건설사업 : 아부다비~두바이간 130km 구간

- ② (항공) UAE측은 한-UAE(아부다비)간 항공운항 횟수 증대를 요구하였고, 우리측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항공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화답

< 금융 및 인력진출 >

- ① (금융) UAE 국부펀드와 KIC간 해외 공동 투자기회 모색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

- ② (인력진출) 양국간 전문가 인적교류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경험 공유 및 공동연구, 자격제도 분야에서의 컨설팅 등 더욱 실질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

- 또한, UAE측의 수요가 많은 간호, 건설, 항공 분야 인력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,

-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향후 건축, 토목, ICT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한국의 고급 전문기술 인력이 UAE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 등 협조를 요청

< 정부간 인사교류 >

- ① (공무원 교류) 양국간 既 체결된 “공무원 인적교류 MOU*”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상호 정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

* 기획재정부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간 인적교류 MOU 체결('09.11월)

② (연수 프로그램 신설) 아울러, 공무원 인적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중·고위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

□ 양측은 또한 향후 한-UAE 공동위를 정례화하여 격년으로 개최하고, 합의사항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“이행평가 보고서”(6개월 간격) 교환 및 “실무회의”를 개최(1년 간격)하기로 합의

○ 제 3차 한-UAE 공동위는 양측 대표단 합의에 의해 2012년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할 예정임

※ <별첨> 「한-UAE 공동위」, 윤증현 장관 만찬사 (국·영문)

기획재정부 대변인